

수능 언어 영역 문항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김중신**

<차 례>

- I. 서론—소위 ‘문제의 원리’라는 문제
- II. 언어 영역의 문제의 원리—문항과 답지의 유형
- III. 2008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의 개관
- IV. 2008학년도 언어 문제 ‘문학’ 영역 문항 검토
- V. 언어 영역 준비에 대한 대안적 제시
- VI. 결론

I. 서론—소위 ‘문제의 원리’라는 문제

“지능이 평균 이상은 되겠지만 천재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아요. 다른 점이라면 뭐든 스스로 답을 찾는 게 습관이 됐을 뿐이죠.” 그는 과학고 입학 후 첫 시험에서 전체 꼴지를 했다. “그런데 반에서 1등 하던 강남 사는 친구에게 문제의 원리를 물었더니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늘 주어진 대로만 해오던 친구들이라 새로운 상황에선 헤매요.”

중학교 3학년 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고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미국으로 유학을 하여 MIT 학부·석사를 만점 학점으로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38회 학술발표대회(2007. 12. 1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수원대학교 국문과

로 졸업하고 병역 의무를 이수하기 위해 귀국한 한 청년의 인터뷰 기사이다. 이 청년을 충격에 빠뜨렸던 문제¹⁾의 원리란 무엇인가?

문제의 원리(the principle of problem)는 문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문제를 구성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원리를 잘 파악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²⁾

그러면 2008년 현재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국가 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러한 원리는 있는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간단히 말하면 당해 년도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³⁾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대학 진학이 삶의 질 중 상당 부분을 좌우한다는 면에서, 이 시험은 종전 섰던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수능에 출제된 문항이 그 다음 해의 고교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험을 치를 때, 항공기가 뜨지 않고 전 국민의 출근 시간이 한 시간씩 늦추어진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험이다. 이토록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수능에 대해 교육 당국은 등급제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무력화, 무능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험생 55만 명이 4만 7천원이나 되는 전형료를 납부하여 약 2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⁴⁾을 들여서 만드는 시험으로서 가장 유력한 국가고시임은 분명

1) 문제(problem)는 질문으로 제출되어 대답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연구나 논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의 원어 ‘problēma’는 ‘앞에 내던져진 것’을 의미한다. 제기된 문제는 해결하게 되고 그 해결은 다시 새로운 문제를 계속 던지게 되므로 사람들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을 문제로 제기한다.

2) 그런데 문제의 원리는 ‘답지가 가장 긴 것이 정답이다.’는 문제의 원리가 될 수 없다. 답지의 구성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따라서’ 뒤에는 필자의 주된 요지가 나온다는 텍스트의 구성 원리이므로 문제의 원리가 될 수 있다.

3) 수능 언어영역 시험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을 위하여 요구하는 우리말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듣기, 쓰기, 읽기 등 우리말 사용 능력을 범교과적인 제재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시험이다.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언어영역 평가원 출제매뉴얼, 2004. 12.

하다.

그렇다면 수능 언어 영역 시험에는 어떠한 문제의 원리가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수능 언어 영역 시험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의 원리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수능의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나 지침서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시험과 관련하여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영역별 출제 모형 정립 및 모형 활용 방안 연구>(1993. 9), <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1995) 등 몇 가지의 책자를 발행한 바 있으나, 수능의 실제로 출제 방법에 대한 자료는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회에서 제작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출제 방향 및 방법의 개선 연구>(1994. 11)와 <언어영역평가원출제매뉴얼>(2004. 12)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학 영역의 경우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의 경우,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대상이 무엇이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화자가 전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설은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과 갈등이 중요하므로, 소설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인물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또는 소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거기에 나타나는 배경이 어떤 역할(의미)을 갖는지 파악해야 주제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수능 언어 영역에서의 문제의 원리를 규정하는 데 부족하다. 문제의 원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알려

4) 문제를 출제하는 인적 자원도 만만치 않다. 2002학년도에 출제위원 109명(교수 또는 고교교사), 검토위원 71명, 관리, 출제보조요원, 협력위원 102명, 경비경찰 8명 등 모두 299명이었던 출제 본부가 2008학년도에는 수능 출제위원단 315명, 검토위원단 161명, 관리요원단 175명 등 총 651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이외에도 인쇄 본부와 채점본부까지 합치면 800여 명의 인적 자원이 동원된다.

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선 사교육 현장에서는 문항의 유형을 잘 파악하여 출제도와 문제 구성 원리를 체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와 기본 개념과 원리를 토대로 하여 문제집 등을 통해 ‘낮선 문항에서 정답 찾기’ 훈련을 함으로써 응용력을 키우는 것을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

II. 언어 영역의 문제의 원리—문항과 답지의 유형

<출제매뉴얼(2004)>에서도 ‘단순 암기에 의해 답할 수 있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통해 문제를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며 해결하는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며,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출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언어 출제 지침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항 제작 원리에 따른 문항의 유형을 생활 중심형 등 모두 13개로 정리해 놓고 있다. 하지만 문항의 완성도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답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다.

답지는 모두 5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답지는 하나이다. 언어 영역의 특성상 정답지는 문두에서 묻는 바와 일치하는 것 하나와 그렇지 않은 것 네 개로 구성한다. 하지만 오답지가 정답지와 얼마나 근접하느냐에 따라 곤란도는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오답지는 문두의 내용과 6~70%에 해당하는 것 두 개, 정답에 30%에 해당하는 것 하나, 그리고 정답과 전혀 무관한 것 등 모두 4개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오답지의 정답지와 근접도가 높아질수록 곤란도는 높아지면 심지어는 정답지가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답지 제시 방식은 문항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곤란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하나의 문항에는 답지 제시 방식이 하나의 유형을 택하는 것이 수험

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 (1) 단독형 : 하나의 답지에 하나의 개념만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답지로서 제시된 항목이 묻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만을 고려하면 된다. 주로 ‘A’ 혹은 ‘A이다’라는 식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유형의 답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병렬형 : 하나의 답지에 두 개 이상의 개념을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이다. 제시된 개념이 모두 합치되어야만 정답이 되며, 어느 하나라도 합치가 되지 않으면 오답이 된다. 이런 문항에서는 제시된 개념 모두가 합치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면 적절한 문항이 되지 못한다. 하나만 알게 되면 다른 개념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로 ‘A이고 B이다.’라는 식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유형의 답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 ○이다 ② ○ × ③ × ○
④ ○ × ⑤ × ×

- (3) 연계형 : 하나의 답지에 두 개 이상의 개념이 서로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도록 제시하는 방식이다. 주로 ‘A하여 B하다.’라든가 ‘A하면서 B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시된다.

제시된 두 항목이 합치되어야 할 뿐 아니라 두 항목 사이의 연계성도 합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광수의 <무정>에 대해 ‘이 형식을 통해 계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이 형식을 통해 계급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답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① ○하여 ○하다 ② ○하여 ×하다 ③ ×하여 ○하다
 ④ ○하여 ×하다 ⑤ ×하여 ×하다

Ⅲ. 2008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의 개관

2008학년도부터 언어 영역은 이전의 90분 60문항에서 80분 50문항으로 각각 시간과 문항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치른다. 1교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다. 문항수와 시간이 줄어든데 비해 시험지 전체 지문들의 길이와 문제의 길이가 전혀 줄지 않았다. 다만 글자 수는 2007년 15,164자에서 2008년에는 13,394자로 1,800자 정도 줄어들긴 했다. 이전의 시험보다 10분 줄어든 시간으로 50문제를 풀게 되는 셈인데 지문 수에는 변동이 없으니 예전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1> 2008 수능 언어 영역별 문항수 및 배점 비교

구분			듣기 말하기	쓰기	문학						비문학					
					현대시	고전 시가	수필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생활 언어		
2007 수능	문항수	6	8	5	6(복합)	5	5	-	4	4	5	4	4	4		
	배점	10	16	8	10(복합)	9	8	-	6	6	8	6	7	6		
	합계	10점	16점	4지문 21문항 35점						6지문 25문항 39점						
2008 수능	문항수	5	7	6(복합)	-	4	4	3	4	3	3	4	4	3		
	배점	10	15	13(복합)	-	8	7	6	7	7	6	8	7	6		
	합계	10점	15점	4지문 17문항 34점						6지문 21문항 41점						

언어 영역은 모의 평가결과를 참조, 수험생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이며, 등급이 안정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걸쳐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을 적절히 안배해 변별력을 갖추었다고 분석된다.

<표 2> 2007 수능과 2008 수능의 독해 지문의 글자수 비교

		2007 수능	2008 수능
문 학	현대시	724	599
	현대소설	2650	2028
	고전시가		1781
	수필	1460	
	희곡/시나리오	1676	1375
비문학	인문	1517	1251
	사회	1261	1300
	과학	1527	1385
	기술	1418	1226
	예술	1610	1199
	언어	1321	1250
합 계		15,164	13,394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영역’의 문항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서정시’ 영역과 ‘현대 소설’ 영역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문학 영역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김광균의 ‘와사등’, 김수영의 ‘수령’, 김만중의 ‘사씨남정기’ 등으로서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다룬 작품들로서 대체로 학생들에게 익숙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장르 복합 지문에 출제된 권호문의 시조 ‘한거십팔곡’ 정도가 낯설다고 할 수 있다. 현대시와 고전 시가를 장르 복합하여 6문항 출제한 것도 특이할 만하다.

IV. 2008학년도 언어 문제 ‘문학’ 영역 문항 검토

언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지문을 토대로 출제되므로, 출제의 제1원칙은 어떠한 지문을 선정하느냐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문 선정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나 문학의 경우 텍스트 자체가 수정됨이 없이 하나의 지문이 되므로 선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로 출제의 적절성이다. 대개 하나의 지문에 5내지 6개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지문은 단순 사실이나 주장을 평면적으로 담고 있는 것보다는 필자의 주장이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선호된다. 특히, 하나의 지문에 어휘력, 사실적 사고, 추리상상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을 측정하는 문제가 골고루 망라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요구는 매우 절박하다.

둘째로 내용의 교육성이다. 실제로 수능의 기능을 아무리 미화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 영역에서 출제된 지문은 그 순간에 당일 55만 명 앞으로 수년간 수백만의 독자를 강제적으로 갖게 된다는 점에서 지문 선정의 원칙을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수능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비책은 기출 문제의 검토라는 점에서 다음 해의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어 영역에서 출제할 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출제에 교육적 효과⁵⁾를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5) 한국 문학사의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서정주가 수능 지문으로 처음으로 실리게 된 것은 1997년도이다. 그 이전의 95학년도와 96학년도 시 영역 출제 과정에서조차 서정주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서정주의 민족사적 죄과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 지문으로 출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년 연속 교체되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시 작품을 기본적으로 언어 자료로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언어 외적인 측면에서 특정 작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설령 민족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를 배제함으로써 보다는 다룸으로써 작가적 위상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문항 제작에 필요하다면 서정주의 작품을 선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최근 수능에 출제된 작품들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다.⁶⁾

<표 3> 2007~8 수능 문학 지문 비교표

	2008 수능	2007 수능
현대시	김광균 <와사등>, 김수영 <사령(死靈)>	이육사 <교목>, 신석정 <들길에 서서>, 김종길 <고고>
고전 기사	권호문 <한거십팔곡>	계랑 <시조>, 조위 <만분가>
고전 소설	김만중 <사씨남정기>	<적벽가>
극, 수필	천승세 <만선(滿鮮)>	양주동 <질화로>
현대 소설	최일남 <호르는 북>	김유정 <만무방>

1. 서정시 분야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나 //

㉡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6) 필자는 4년 전 고등학교를 갓 진학한 딸에게 필자의 경험을 되살려 고전 시가의 암송을 권장하였다. 딸은 <청산별곡>, <상춘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 한국 고전 대표기사를 힘들여 암송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교 3년간 모의고사에서 한번도 출제되지 않았고 필자는 딸로부터 투정과 불평을 들어야만 하였다.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금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㉞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제4수>
 어찌라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2008년도 수능에서는 이전에 비해 문항이 10개로 줄은 탓에 현대시 2편과 고전시가 편이 묶여서 모두 6문항이 서정시 영역으로 출제되었다. 2점짜리 5문항, 3점짜리 1문항으로 모두 13점을 배치하고 있어 점수상으로는 그다지 적다고 할 수 없다.

각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문두]

문두는 묻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 문항은 제시된 작품 세 개의 공통된 속성에 대해 묻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답지는 모두 ‘화자’에 국한 된 것이다. 문두는 ‘(가)~(다)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하여 묻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지]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답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다.

①과 ④의 주어는 ‘화자’이다. 그렇다면 다른 답지의 구성도 주어를 ‘화자’로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각 답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② (가)와 (다)에서 화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에서 화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 화자는 삶에 대한 고뇌를 나타내고 있다.

[표현]

②에서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과 ⑤에서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적절한 문장이 아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두]

문두는 제시된 답지의 내용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답지들은 모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말한 것은?’으로 바꾸어야 한다.

[답지]

이 문항의 답지들은 모두 ‘A하여 B하다’는 식의 연계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의미가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현]

①에서 ‘반복하여’의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 한다. ‘대조적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가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공간의 의미 강화’도 평론적 진술로서 의미가 불명료하다.

③에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유사한 내용을 대응시키거나 반복할 때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심화된 화자의 정서(허망함, 자괴감 등)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⑤에서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불필요한 채언이다. 시인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어 하나하나

를 갖고 다듬는다. 차라리 역설과 반어를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자유의 소중함’ 혹은 ‘지식인의 자기반성’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오답의 구성]

오답지는 문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답지로서 정답지를 숨겨주는 역할을 한다. 영화로 말하면 조역과 같은 역할이다. 빛나는 영화는 빛나는 조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오답지를 얼마나 그럴 듯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문항의 질이 좌우된다.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정답이더라도 그것이 홀로 있다면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답의 요소는 적절하고도 각 답지에 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문항은 특정한 지문만을 다루고 있어 편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①은 (가)와 (나) 어느 곳에서도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②는 (나)의 1연과 5연에서 ‘활자는…자유를 말하는데’에서 보인다. (가)의 ‘여름 해…나래를 접고’는 의인화가 아닌 활유로 간주하여 오답으로 설정하고 있다.

③은 (가)와 (나)에서 모두 보인다.

④는 (나)의 2연의 첫 행에서 ‘벗이여’에서만 보인다.

⑤는 (나)의 마지막 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에서만 보인다.

이 문항에서는 정답지 ③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문항 중 세 개의 문항이 (나)에 나타난 요소만을 다루고 있다. 즉 ②, ④, ⑤ 세 답지에서는 (나)에 나타난 요소만을 다루고 있으며 (가)에만 나타나는 요소를 다루고 있는 답지가 보이지 않는다. ①의 답지는 (가), (나) 두 지문 중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문두]

두 시의 특정한 구절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으로서 복합 지문에서 출제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문항이다. 한글 자음 원문자(㉠~㉡)와 영어 소문자 원문자(㉠~㉡)는 지문의 특정 부분에 대해 물을 때 사용하는 기호이다.⁷⁾ 이번의 현대 시 지문에서도 원문자 두 가지가 모두 제시되었다. 그런데 한글 원문자가 영어 원문자보다 앞서 다루어지는 것이 관례로 보인다.⁸⁾ 15번 문항에서는 영어 소문자, 16번 문항에서 한글 원문자가 출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답지]

이 답지의 구성은 병렬형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답지에 두 개 이상의 요소를 제시하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합치하지 않으면 오답이 되는 문항이다.

①의 ‘달리’에 주목을 한다면, 이 답지는 ‘㉠은 상승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은 ‘나래를 접는다’고 하여 오히려 하강의 이미지가 있고 ㉡에는 상승이나 하강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다. 즉 실제로 ㉠와 ㉡는 모두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두 개의 개념이 모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나 ㉡ 중 하나만 알면 자동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병렬형 문항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7) 또한 지문의 밑줄 친 다섯 개의 요소에서 하나를 고를 때는 영어 소문자(㉠~㉡), 특정한 부분에 대해 물을 때는 한글 자음 원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관례로 보인다.

8) 동일 시험의 소설 지문 49번과 50번에서도 이러한 관례가 적용되고 있다.

②가 오답이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좀더 분명해진다. ‘나래를 접는다’나 ‘세월이 물 흐르는 듯하다’는 모두 관습적 표현이기 때문에 ‘달리’에 위배된다.

16.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보 기 > —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두]

16번 이하 세 문항은 모두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보기>는 통상 주어진 지문과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지문을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기>는 추가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함으로써 묻고자 하는 바를 좀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16번 문항은 <보기>를 제시하고 다섯 개의 시어에서 ‘근대 이후 자아와 세계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드러낸 단어가 아닌 것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기>는 띄어쓰기 포함 173자에 40개의 낱말로 이루어져 있거니와 ‘자아가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거나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이라는 등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고교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개념을 담고 있다.

[답지]

단독형 문형이다. <보기>의 내용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답지의 구성상의 결격으로 인해 완성도 높은 문항이라고 할 수 없다.

출제자들은 ②는 단지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는 것을 말한 것이지 불안한 느낌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①은 가로등을 ‘슬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③은 어둠을 ‘낮설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④는 도시적 삶의 단절감을 ‘공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⑤㉠은 현대인의 무정향성을 ‘차단-한’이라고 표현하여 모두 비정한 현대 도시 문명 속에서 방향 의식을 상실한 자아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파악한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출제 의도에도 불구하고 답지 구성상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즉 정답지 ② ‘늘어선’을 제외한 나머지 답지들은 모두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이다. 단적으로 말해 이 문항은 ‘다음 중 동사는?’이라고 물어도 답을 찾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문항이다. 출제자의 문항 구성 원리대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추적해 간 학생들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라.’라는 시중의 격언이 들어맞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거품 문항’이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파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강조는 인용자)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문두]

서정시 영역에서 유일하게 3점이 배정되어 있다. 시인의 삶과 관련된 내용이 <보기>로 제시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기]

17번 문항도 역시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나)의 김수영의 ‘사령(死靈)’은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긴 하지만 18종 문학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 수험생들에게 낯이 설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어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 <보기>를 통해 이 시가 김수영이 ‘서강’에서 생활을 할 때 쓰인 것이라는 알려줌으로써 4연의 ‘욕된 교외’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기>를 참고로 하여 제시된 시를 좀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수능에서 제시되는 문장은 가장 정확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당해년도 55만 명의 수험생을 독자로 한다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도 매년 그 수 만큼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독자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보기>는 여섯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한 의미를 담

고 있어 독해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기>의 세 번째 문장 ‘생활에 대한 긍정’은 매우 평론적인 표현이다.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문맥상으로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이중 복문으로서 주술 관계가 매우 모호하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뒤에 쉼표를 찍어주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그것을 이겨내려고’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바도 모호하다. ‘일상생활에 빠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에서 ‘이겨내려고’가 적절하다. 쓰기 영역에서 고쳐 쓰기 문항의 <보기> 지문으로 채택될만한 문장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에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임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문두]

이 문항도 17번과 마찬가지로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보기>를 토대로 하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서 앞의 17번과 동일한 문형이다. 하지만 유사한 형태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문두의 내용은 다르게 하고 있다.

[보기]

연시조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연시조의 특성에 대해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아 추가 정보 제공으로서의 <보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문 속에서 이미 (다)라는 하나의 항목 하에 묶여 있으므로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연시조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질서정연한 구성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다. 또한 지문 속에서 각 편의 끝에 <제1수>~<제5수>라고 밝혀주기 까지 하고 있다. 16번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보기>의 내용이 췌언에 지나지 않아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하게 한다.

물론 이 작품은 각 연이 독자적인 주제를 개별적으로 노래할 것이 아니라 의미상의 맥락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어 사상과 주제의 전개 및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 전체가 현실 세계로부터 일탈하여 강호 자연 속으로 침잠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계기에 의하여 단계적,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시조의 각 수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이 작품의 구성상의 특징을 <보기>로 제시하는 것이 추가 정보 제공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답지]

전체적으로 <보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무난한 구성이다. 하지만 ④의 답지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수에서는 작자의 마음이 충효(忠孝)로 대변되는 현실세계에 이끌려 마음의 방황을 거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2수에서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 공명(功名)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제3수에서는 속세를 잊고 자연에 거하고자 하는 뜻이 나와 있다. 따라서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기 보다는 제1수의 ‘충효’와 3수의 ‘임천(林泉)’ 사이의 갈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현대 소설 분야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으로 옮겨 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 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복소리는, 우리 같은 줄개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올렸다.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서는 듣기 싫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기도 했다.

“애들아, 꺼져 가는 떠돌이 복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민 노인의 겸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품이 다른걸요.”

“맞아요. ㉠우리가 칠 때는 죽어 있던 복소리가, 꿩과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성규, 이번에 참 욕보았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 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꽤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담합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 볼 수는 없었으되.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새벽에 민 노인은 성규에게 일렀다.

“아무리 단역이라고는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모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복채를 잡을 수 없어.”

“물론이지요.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놓으세요. 제가 따로 가지고 갈게요.”

“두 시부터라고 했지?”

“네.”

“이따 만나자.”

일찍 점심을 먹고, 어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레임으로 흔들렸다.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춤판에 영감쟁이 하나가 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모처럼의 복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옅은 적막감도 씻어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젊은 훈김들이 뿔어내

는 학교 마당에 서자 그런 머뭇거림은 가당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 속에 섞여 원진(圓陣)을 이루고 있는 구경꾼들을 대하자,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지 녹아 내렸다. ㉠ 그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노장이 나오고 취발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목중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 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까르르 웃었다. 민 노인의 복은 요긴한 대목에서 뚱뚱 울렸다. 짜지는 소리를 내는 뺑과리며 장구에 파묻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 노인에게는 전혀 패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복소리는 툃 툃 꽃혔다. 그새 입에서는 얼쑤!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릿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복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복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웬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 이번에도 내가 늑들 체면 깼잖나.”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최일남, 「호르는 복」

47.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문두]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그’에 주목을 한다면 특징과 효과를 각각 별개로 묻는 것이 아니라, 서술상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그 특징이 작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답지]

답지에 제시된 두 개 이상의 개념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 이른바 연계형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항에서는 답지도 ‘A를 하여 B를 하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A와 B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답지 중에는 A와 B가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제시를 하여야 묻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측정할 수 있다. 그래야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연계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A만 알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답지에서는 모두 앞의 내용만 파악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⁹⁾

9) 인터넷 카페에 올라있는 이 문항에 대한 오답 해설은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가운데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 세대를 넘어서는 화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답지 중 하나를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림으로써 시대 현실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48. 위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걸리 집’은 ‘민 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 ② ‘춤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③ ‘춤판’은 ‘구경꾼들’이 공연 내용에 반응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 ④ ‘춤판’은 ‘민 노인’이 신명 나게 북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 ✓⑤ ‘집’은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문두]

제시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세 개의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고딕체나 네모로 표시하여 쉽게 눈에 띄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지문에서는 고딕체로 굵게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문두 제시 방법이 일관적이지 못하다.

[답지]

답지 중 ‘춤판’이 세 개 제시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춤판’이 매우 중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민 노인의 북을 치는 행위를 통해 민 노인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⑤ 이 부분에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요한 공간이긴 하나 제시된 지문 전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학교’를 하나 정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보직했다.

정답지로 제시한 ⑤는 논리적으로 인과성이 전혀 없는 문장이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체보다 겉모습을 중시한다. 따라서 허영심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허영심을 억압하는 경우는 없다. 지문에 대한 이해보다 통념적인 사실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4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부담감을 떨치고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 ③ ㉢ : 상황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의 상태에 있다.
 - ④ ㉣ :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⑤ ㉤ :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다.

[문두]

㉠~㉣은 소설 속의 부분들이다. 소설 속의 각 문장은 사건을 전개하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도 드러냄으로써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소설 속의 문장을 ‘이해’한 내용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다. 답지의 내용들이 대체로 각 문장의 주체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좀더 정확한 발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답지]

답지는 모두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에서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으로 오독할 여지가 있다. 답지 ①에서도 ‘상대방에 대한~’이 오독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답지는 적절하지 않은 답이므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혹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독을 막게 할 것이다.

50. ㉠과 ㉡를 바탕으로 ‘민 노인’의 예술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예술은 예술가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성취되는 아름다움의 결정체이다.
- ✓② 예술은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 ③ 예술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시대의 이상을 곳곳이 지켜야 한다.
- ④ 예술은 청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서 성취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 ⑤ 예술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문두]

이 문항의 문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주술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을 바탕으로’는 주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표현이다. ‘㉠과 ㉡를 바탕으로 할 때’라든가 ‘㉠과 ㉡를 미루어 볼 때’ 혹은 ‘㉠과 ㉡에 나타난’ 등이 바람직하다.

둘째,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바인 ‘태도’라는 용어가 부정확하다.

태도(態度, attitude)는 일상용어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양태(樣態)’나 ‘자세’를 의미한다. 사회학·심리학·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적 개념의 하나로 쓰이며, ‘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 물건이나 사람 등에 관해서 어떤 인식과 감정 및 평가를 가지며, 거기에 입각하여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응의 준비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태도의 언어적 표현이 의견이다. 의견을 통하여 그 사람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여론조사 등의 경우). 2008 수능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서도 ‘태도’를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태도’는 가지거나 지니고 혹은 기르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일종의 포즈(pause)나 자세를 말하기 때문이다.¹⁰⁾ 따라서 ‘태도’보다는 ‘생각’이나 ‘견해’가 좀더

10) 교육과정 해설의 심화 과목 ‘문학’ 항목에서 ‘(다) 문학에 대한 태도’에 ‘① 문학 활동을 하면서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② 통일 문학, 세계 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로 진술하

적확한 물음이다.

따라서 이 문두는 ‘㉠와 ㉡를 바탕으로 할 때, ‘민 노인’의 예술에 대한 생각(견해)을 가장 잘 말한 것은?’이 적절하다.

[답지]

답지의 구성은 동일한 화제나 유사한 범위를 다룬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의 답지는 상호간에 다루는 수준이 다르다.

①은 ‘아름다움의 결정체로 여기고 있다.’로, ②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②, ③의 서술어는 ‘~하여야 한다’는 정책명제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주어는 추상 명사가 아닌 유정 명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는 ‘예술’이 아니라 ‘예술가’이어야 한다.

V. 언어 영역 준비에 대한 대안적 제시

전공이 전공이니 만큼 이런저런 이유로 학생들이나 현장 선생님들로부터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때만큼 ‘잘!’이라는 답이 적절하다고 느껴본 것이 없다. 그야말로 우문우답(愚問愚答)인 격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수능에 대비하는 방안이 고작해야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푸는 것 이외에 딱히 할 일이 없는 것은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입시 제도의 변경 속에서도 수능 만은 계속적으로 존속시키려는 추세이니 국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집이나 뒤적이는 것 말고 좀더 색다른 대비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와 책무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수능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수능 전문가란 무엇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흔히 수능 전문가라고 하면, 수능 출제위원, 모의고사 출제위원, 일선 학교 선생님, 혹은 학원이나 TV의 강사 등을 지칭한다. 이들을 왜 수능 전문가로 지칭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곧 수능 언어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전문가가 되는 길은 출제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된다. 수능 전문가가 되는 것은 수능출제위원이 되어 보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수능은 답지(答枝)가 주어진다는 점을 특색으로 한다. 그 답지는 정답에 90% 이상 해당하는 것 하나, 정답에 6~70%에 해당하는 것 두 개, 정답에 30%에 해당하는 것 하나, 그리고 정답과 전혀 무관한 것 등 모두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나머지 네 개는 모두 함정이다. 누구나 빠지기 쉬운, 그러나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다. 이 함정을 잘 피하는 것이 수능 고득점의 비결이다. 그렇다면 4개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있는가? 정답은 유감스럽게도 '없다'이다. 수능 역사상 수백만 명의 학생 중 이 함정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없다. 단, 다른 사람보다 덜 빠지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4개의 함정에 잘 안 빠지는 비결은 있는가? 있다. 그것은? 실제로 함정을 파 보는 것이다. 함정을 파 본 사람만이 어디에 함정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함정을 잘 피하기 위해서는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만드느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수능 문제를 틈틈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수능 대비를 위한 또 하나의 비책 아닌 비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 출제 위원이 수능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다. 출제위원들은 다른 사람이 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낸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학생들보다 훨씬 더 못 맞히는 경우가 많다. 그건, 다만 학생들에 비해서 수능 문제를 좀 세련되게 낼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책이나 잡지, 신문문을 읽을 때 그것을 수능식 지문으로 설정하여 문제를 좀 잘 다듬어서 낼 수 있다는 것, 즉 ‘매력 있는 오답’ 혹은 ‘그

럴듯한 정답'을 잘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뿐이다.

1. 정답 만들기

정답은 수능의 핵심이자 입시의 요체이다. 따라서 정답을 만드는 일은 문항 작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정답지는 나머지 4개의 오답에 둘러 싸여 있다. 정답을 찾는 일이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일이고, 진 흙탕에서 진주를 찾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답을 만드는 일은 바로 그 장미와 진주를 숨겨 놓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¹¹⁾ 그만큼 지문의 내용과 문두의 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지문과 문두 그리고 오답지를 읽은 후 정답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언어적 사고력 증진에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다.

<듣기> 다음은 어느 교양 미술 시간의 강연 내용이다. 그림을 보면서 강연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
- 11) 정답을 잘 모르는 수험생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소위 '찍기'가 가능하지 않은 정답지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01학년도 40번의 경우
-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 ④ 할인 매장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샀다.
 -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 ②번만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상호 호혜적이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두나 지문을 읽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 문제의 답은 ②이다.



이 그림을 볼까요. 김홍도의 <씨름>입니다. 씨름판이 벌어졌군요. 씨름꾼은 살바를 상대편 허벅지에 휘감아 팔뚝에만 걸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앞쪽 장사의 들배지기가 제대로 먹혔으니 앞사람이 이겼군요. 뒷사람의 찢찢대는 눈매와 깊게 주름잡힌 양미간, 그리고 들뜬 왼발과 떠오르는 오른발을 보세요. 아주 절망적이지요. 게다가 오른손까지 점점 빠져나가 바나나처럼 길어보이니 곧 자빠질 게 틀림없습니다.

이크, 오른편 아래 두 구경꾼이 깜짝 놀라며 입을 딱 벌리고 있군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림 속 왼손 오른손까지 뒤바뀌었습니다. 순간 상체는 뒤로 밀리고 오른팔은 뒷땅을 짚었습니다. 판이 난겁니다. 다음 선수는 누구일까요? 왼편 위쪽, 부채로 얼굴을 가린 어리숙한 양반은 아닐 성싶고……. 갓도 삐뚤름하고 발이 저려 비죽이 내민 품이 좀 미웁스러워 보이지요. 그 뒤 의관이 단정한 노인은 너무 연만하시니 물론 아니고, 옳거니 그 앞의 두 장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갓을 벗어 나란히 겹쳐 놓고 발막신도 벌써 벗어 놓았군요. 눈매가 날카롭고 등줄기가 곧으며 내심 긴장한 듯 무릎을 세워 두 손을 깎지 낀 채 선수들의 장단점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선수 두 사람의 초조함과는 무관하게 옛장수는 혼자서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옛판에 놓인 엽전 세 냥이 흐뭇해선가….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공책만한 종이 위에 스물 두 사람을 그렸는데 인물은 아래보다 위에 더 많지요. 구도가 과분수니까 씨름판의 열기는 저절로 우러나는군요. 그런데 구경꾼은 모두 위에서 내려다본 시각으로 그렸고 씨름꾼만 아래서 치켜다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고 그렸으면 난장이처럼 왜소해졌을 것입니다. 화가는 구경꾼들이 앉아서 바라본 시각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는 이가 씨름판에 끼어든 듯 현장감이 살아납니다.

(물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에서 해설자가 언급한 내용은?

- ① 전체적인 색조
- ② 그림의 창작 시기
- ③ 작가의 생몰 연대

④ 현재 작품이 있는 곳

✓⑤

미술관에서 그림에 대한 해설을 듣고 언급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사실적 사고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두는 단순한 사실적 이해만을 묻는 문제로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일정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 문제의 원리란 문제 구성상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각 답지를 구성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답지를 구성하도록 한다.

먼저 해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해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해설자는 먼저 그림 중앙에 자리 잡은 씨름꾼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있고, 이어 다음에 등장할 선수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들의 초조한 모습과 아랑곳하지 않은 엿장수의 표정을 설명한 다음에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하고 있다.

해설자는 서두에 이 그림을 김홍도가 그렸다는 사실만 말했을 뿐, 창작 연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색조나 그림의 창작 시기, 작가의 생몰 연대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네모가 있는 ⑤이며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이다.¹²⁾ 또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도 있다.

12) 언어 영역에서 짧은 문장을 답하는 문형 도입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휴대문자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영역에서도 짧은 주관식 문장을 서술하게 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 알파벳이 26개나 되는 반면, 한글은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이 불과 14개 정도로 압축되기 때문에 버튼 수가 한정된 휴대폰에선 큰 장점이다. 이렇게 자모음 숫자는 적지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대로 자모를 조합해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 내게 된다. 실제로 2007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휴대전화 문자 빨리 보내기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한 13살 소녀로 알파벳 34개를 15초 만에 두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분당 318타로, 모두 92개의 글자를 입력했다. 미국 챔피언보다 2배가 훨씬 낫을 만큼 빠른 속도이다. SBS 뉴스, 2007.10.09 보도

(물음) 이 해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 ✓① 그림의 창작 연대
- ② 씨름의 승자와 패자
- ③ 다음에 등장할 선수
- ④ 옛장수의 표정
- ⑤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

이른바 긍정 문두를 부정 문두로 바꾸어서 출제한 것이다. 언어 영역의 특성상 부정 문두도 긍정 문두 못지않게 출제에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정답지인 ①을 네모로 놓고 답지를 완성하게 할 수도 있다.

2. 오답 만들기

오답지는 문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답지로서 정답지를 숨겨주는 역할을 한다. 영화로 말하면 조역과 같은 역할이다. 하지만, 빛나는 영화는 빛나는 조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되새긴다면, 오답지를 얼마나 그럴 듯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문항의 질이 좌우된다.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정답이더라도 그것이 홀로 있다면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정답지가 문두에서 묻는 바와 90% 이상 일치해야 한다면, 오답지는 문두의 내용과 6~70%에 해당하는 것 두 개, 정답에 30%에 해당하는 것 하나, 그리고 정답과 전혀 무관한 것 등 모두 4개로 구성한다. 또한 문두의 형태가 부정 문두일 때는 오답지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 다음은 위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문항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적절한 답지를 써넣으시오.

(물음) 이 해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① 그림의 창작 연대

② 씨름의 승자와 패자

③ 다음에 등장할 선수

④ 옛장수의 표정

⑤

정답 :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

이 문항은 실제로 작성된 문항을 푸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항 구성의 원칙에 의거해 오답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보기>의 문항에서 정답은 ①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네모 속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에서 다루어진 내용이어야 한다. ②, ③, ④를 제외한 사항을 찾아내어 답지를 구성해야 한다. 정답은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이다.

제시된 답 이외에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라든가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숫자’와 같은 답지도 제시될 수 있으나 이러한 답지는 사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나, 해설을 듣지 않고 그림만 보고 풀 수 있으므로 적절한 답지라고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문두 만들거나 2개 이상의 오답 만들기, 해설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사고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 교수 학습자의 구성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교수자와 학습자는 강의자와 수강자로서가 아니라 조력자와 해결자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 언어 영역 문항에 대한 강의는 지문 해설과 문두 설명, 그리도 오답지에 대한 풀이, 최종적으로 정답 제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한 문항 풀이 형식으로 수험생들에게

일방적인 설명만을 제시하게 된다. 이 방식은 교수자가 학습자보다 단지 정답과 해설을 먼저 봤다는 것 말고는 문제 해결력이 우수하다고 단적으로 말할 근거가 없다.

수능 문제는 단순 암기 문제가 아니라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또한 수능의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 사태가 조력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단순 강의형 문제 풀이는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수능 문제 풀이는 결국 하나의 문제 사태에 대하여 풀이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즉 지문에 대한 이해와 문두, 그리고 정답지 찾는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히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정답을 구성해 내는 것이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 내에 하나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다. 한 문항 당 1분 36초이므로 5문항인 경우는 8분 내에 정답을 찾아야 한다. 두 사람이 정답을 말한 후 각자 정답인 이유를 설명한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4> 구성적 사고방식에 의한 교수·학습자의 반응 양상

변이 양상	교수자의 답지	학습자의 답지	비고
둘 다 정답	③	③	교수·학습자의 학습 만족도 고조
교수자 정답, 학습자 오답	③	①	교수자의 권위적 설명이 요구됨
교수자 오답, 학습자 정답	①	③	교수자의 해명이 요구됨
교수·학습자 동일 오답	①	①	문제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
교수·학습자 상이 오답	②	④	상호 설득을 통해 정답 찾기 활동 활발

* 정답이 ③인 경우를 가정함

이러한 구성적 사고방식에 의한 정답 찾기 활동은 수능 언어 문제에 대한 교수 학습자의 어느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상호 협동적이면서도 언어 영역에서 요구하는 고등 사고력에 대한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답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사고는 창의력을 저해한다. 이순신 장군 전기를 읽었다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는 무엇일까?’ ‘거북선’이라는 사실적 이해를 토대로 한 문답은 생각의 틀을 좁게 만드는 수렴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도한다. ‘다른 배와 거북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거북선? 거북이 모양과 같이 생겼고, 노를 배 안에서 젓고…’ 등등의 다양한 생각을 유도함으로써 확산적 사고방식을 유도해야 한다.

한 가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새 시대에는 뛰어난 능력으로 대접받는다. 사지선다형이나 단답형 등의 각종 문제지를 풀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리를 이해해서 스스로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게 만드는 주관식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제 수능은 학생들 문제이면서 결국 우리 국어교육계에서 짊어질 책무이기도 하다. 우리 국어 교사들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세대들이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앞길이 '어렵다'고 불평만 하거나, 그래서 쉬운 길로 가기만을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수능이 한국적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덫이자 제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것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8. 2. 25. 투고되었으며, 2008. 3. 9. 심사가 시작되어 2008. 3.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문제, 2007.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언어영역 평가원 출제매뉴얼, 2004. 12.

<http://blog.naver.com/worbs23?Redirect=Log&logNo=150024540084>

그 외.

<초록>

수능 언어 영역 문항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김중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간단히 말하면 당해년도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수능에 출제된 문항이 그 다음해의 고교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의 원리(the principle of problem)는 문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문제를 구성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원리를 잘 파악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능 언어 영역에서의 문제의 원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문제의 원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선 사교육 현장에서는 문항의 유형을 잘 파악하여 출제의도와 문제 구성 원리를 체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와 기본 개념과 원리를 토대로 하여 문제집 등을 통해 ‘낯선 문항에서 정답 찾기’ 훈련을 함으로써 응용력을 키우는 것을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

한 가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새 시대에는 뛰어난 능력으로 대접받는다. 사지선다형이나 단답형 등의 각종 문제지를 풀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리를 이해해서 스스로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게 만드는 주관식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제 수능은 학생들 문제이면서 결국 우리 국어교육계에서 짊어질 책무이기도 하다. 우리 국어 교사들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세대들이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앞길에 ‘어렵다’고 불평만 하거나, 그래서 쉬운 길로 가기만을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수능이 한국적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덫이자 제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것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문제의 원리, 문항과 답지의 유형, 문항 타당도

<Abstract>

Critical Approach of Questions of Korean in CSAT 2008

Kim, Jung-s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e below CSAT) measures the student's ability which will study in the university.

The problem of the CSAT is causing a many effect in school education. But the principle of problem of CSAT is not known well.

The teachers advise the students to grasp the pattern of the questions. It will be successful to an examin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incipal of problem rather than the test book.

The students oneself studying which search a cause and a result is very good. The CSAT is the wild problem and a duty which our societies will be finally.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do not become the students regarding the future of the themselves only dissatisfaction the printed style of writing. The CAST from Korean situation is the system which is not the possibility of avoiding in the students. It is that knows the problem point of the learning skill, it improves the cooperative effort necessary with the direction which is developed more.

【Key words】 CSAT, language territory, the principle of problem, the pattern of question and answer item, propriety

【토론문】

“수능 언어 영역 문항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에 대한 토론문

김창원(경인교대)

김중신 교수는 이 논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문제 출제 및 풀이의 원리가 있는지 질문하고, 그 관점에서 2008학년도 문항들을 분석하 문제 점들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은 지문 선정과 문제 구성, 문두 및 답지 기술 등에서 뚜렷한 원리를 찾기 어렵고, 그 결과 학생들의 시험 준비가 기계적인 유형 분류나 정답 찾는 기술로 흘러가게 된다고 한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수능 전문가가 되어 문항을 만들어 보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분석하는 활동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대부분은 2008학년도 시가와 현대소설 영역의 문항 분석으로 채워져 있다. 김 교수는 10문항에 대하여 지문, 문두, 답지를 꼼꼼하게 분석하였는데, 그중에는 앞으로의 출제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적들이 많다. 물론, 출제 과정이나 출제의 심층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상적인 지적을 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는 일은 문항 검토 회의나 시험 결과 분석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기로 한다.

첫째, 수능 시험에서는 정전을 다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이 지적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당한 지적이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몇 안 되는 작품을 놓고 가능한 모든 문제를 예상해 보면서 작품을 ‘찢어발기는’ 수업이 유행할 텐데, 그런 문제를 막을 대안이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서술형 문제라도 그런 부작용을 예방하기가 힘든데, 그보다 훨씬 형식화 되어 있는 수능시험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

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문두 및 답지 표현의 명료성 문제에 대하여—이 지적 역시 당연한 지적이다. 문두와 답지가 모호하거나 함의가 다양하다면 문항의 타당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문두와 답지의 관계, 그리고 답지와 답지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답지가 문두에 구속돼서 표현이 단순해지거나 답지 다섯 개가 똑같은 문장 구조를 취하는 것은,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도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문학 영역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통일성을 위해 문두와 답지를 단순화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셋째, 개념의 적확성 문제에 대하여—수능시험과 같은 대규모 시험에서는 용어 하나하나를 심사숙고해서 사용해야 한다. 용어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개념의 적확성을 위해 한정어를 덧붙이거나 비슷한 자리에 조금씩 다른 정밀한 용어를 구별해서 쓰다 보면 문제가 너무 장황해지고 쓸데없는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 제한된 문제로 가능하면 넓은 내용 영역을 다루려면 개념을 조금 넓게 잡아야 할 때가 많은데, 그때 개념의 적확성과 문제의 포괄성을 조화시킬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이런 반론들이야 ‘좋은 문제’보다 ‘문제 없는 문제’를 지향할 수 밖에 없는 수능시험의 처지를 너무 잘 이해하고 알아서 긴, 반론을 위한 반론들이다. 이 논문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리(the principle of problem)’라는 개념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문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문제를 구성하는 원리”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것은 또 “출제 의도와 문제 구성 원리”이고, 문항과 답지의 구성 원리이기도 하다. 문제의 원리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학교 수업의 초점도 명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쉬운 것은 테제의 중요성에 비해 명쾌한 답이 없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본론은 문제의 원리를 개념화하기보다 기출 문제가 ‘원리가 없다’고

비판하는 데 주력하여, 원래의 문제의식을 찾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2장을 보면 문항과 답지의 유형을 문제의 원리로 본 듯하지만, 그것을 원리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의 원리는 오히려 문항을 출제할 때의 발상과 문제 구성의 초점, 그리고 출제 의도의 구체화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또, 문항 유형에 대해서도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리한 13가지를 언급하는 데 그치고, 답지 유형도 답지가 포함하는 명제들의 관련 상에 따라 단독형-병렬형-연계형의 체제로 정리하는 데서 멈췄다. 이는 답지 하나하나의 기술 유형일 터인데, 그보다 더 상위의 답지 유형이 있을 듯하다. 예컨대 대조-발견형 답지, 분석-종합형 답지, 해석형 답지, 발전형 답지 등의 유형이나 답지간 관계가 병렬적인 것, 상보적인 것, 대조적인 것, 순차적인 것 등의 유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논문의 견해를 발전시켜 평가원 측에서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아쉬움을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수능시험을 논하는 입장을 들 수 있다. 김 교수는 수능시험에 대한 대책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능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이고, “수능 전문가가 되는 것은 수능출제위원이 되어 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함정 만들기’에 두었다.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지적이지만, 그리고 실제 지도에서 효과가 볼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수능 전문 강사의 족집게 강의를 연상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 출제진보다도 문제를 더 잘 푸는 교사와 학원 강사가 잘 알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그쪽에 맡기면 된다. 토론자로서는 그런 요령보다 “하나의 문제 사태에 대하여 풀이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을 여러 가지로 분석한 작업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연구자가 할 일은 ‘문제의 원리’를 개념화하고 그것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 아닐까 한다. 그 일이 이제 여러 사람 공동의 몫으로 남겨졌다.